

칼럼

장기채 주필



제한절은 과연 잊혀지는 국경일인가

옛그제 7월17일은 69주년을 맞는 제한절이다.

그런데도 달력의 7월17일은 빨간 글씨가 아니다. 분명 국경일인데도 쉬지 않았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언한 날인데도 말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제한절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 바로 제한절이다. 헌법이 특별히 7월17일에 공포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어 7월17일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추어 헌법을 공포했다는 사실이다. 1949년 '국경일에 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제한절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제한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 국경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비구를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신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역민들의 터정인보 선생이 제한절을 기념해 만든 노랫말이다.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는 이 구절은 헌법 제정을 문화적으로 절묘하게 표현해 감탄을 자아낸다.

어쨌든 건국 69주년을 표방하는 나라의 달력에서 제한절이 달력의 숫자 색깔만큼이나 퇴색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제한절은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 단계 낮아진 국경일이 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주 5일제로 인한 공휴일과 휴일증가로 쉬는 날이 많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한절이 쉬는 날에서 안 쉬는 날로 바뀌었다면 이 또한 더욱 실망

스럽다.

결국 대한민국 건국 69주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탄생의 기초가 되는 헌법제정일, 다시 말하면 제한절은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어쨌든 국경일인 것과 법정공휴일인 것 차이에는 엄연히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온도 차가 크다. 한마디로 체감이 크게 다를 것이다. 왜 국경일을 만들고 또 다시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는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날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단지 국경일인 때와 그것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때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이렇게 몇 해가 흘러가면 제한절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퇴색해 버리고 말 것 아니겠는가.

나라의 초석인 헌법이 탄생한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일 년에 하루라도 오늘이 헌법의 탄생일이고, 이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제한절은 법정공휴일로 환원되어야 마

땅하다. 나라 인구는 아직도 어수선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의 기본은 두말할 필요 없이 헌법에서 나온다.

제한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한절의원은 이제 단 한사람도 생존해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은 살아있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을 탄생시킨 제한절은 우리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는 날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 1위인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휴가기간 제일 짧은 나라 2위다. 이게 흑사라도 제한절을 공휴일에서 빼아무리면 참으로 넌센스다.

제한절을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로 명실상부하게 되찾는 것은 우리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는 그 첫걸음이자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7월17일은 70주년을 맞는 제한절(制憲節)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비록 69주년을 맞는 제한절은 공휴일은 아니었지만 내년 달력의 7월17일은 빨간 글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공휴일이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社說

학교폭력 근절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이들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니 걱정이 크다.

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초등학생은 신체폭행, 중·고등학생은 사이버폭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3월20일~4월28일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재학생 44만명 가운데 94.9%인 419만명이 참여해 지난해 10월 이후 학교폭력 경향에 대해 답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학생은 3만7천명(0.9%)이었다. 지난해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피해 학생 수는 2천

명 적고 비율은 같다.

교육부는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봤다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2.1%(2만6천400명), 중학생 0.5%(6천300명), 고등학생 0.3%(4천500명)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피해를 봤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줄면서 피해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에서 71%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조사에 처음 참여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경우 매년 2차 실태조사 응답률이 1차 때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은 결국 사회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교육당국과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우리 아이들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丙舍傍啓

丙舍傍啓

▶ 뜻: 병사 곁에 통로를 열어 궁전 내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했음.

湖南新聞 (Hubei Daily) publication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김홍균 순천경찰서장



피서지 성범죄 예방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올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연인 혹은 친구들과 해수욕장이나 시원한 계곡, 워터파크, 야외 풀장 등 피서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태수도 순천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청소골·용오름·선암사 계곡을 찾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피서지는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성범죄또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

지는 다중 운집·음주 등의 요인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크다.

특히 성범죄 중 '카메라이용 촬영범죄'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담에서는 11년 21건에서 16년 6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 또한 여름철 물가범죄는 14년 1건, 15년 21건 16년 18건이 일상 생활 장소 곳곳에서 발생하여 여성들에게 막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계곡 등 다

중이 운집하는 피서지에 총 90개의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 경찰서도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물가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을 집중 점검 하고 성범죄 예방 전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은 범죄로부터 예외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피서지 성범죄 예방수칙을 잘 숙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휴대전화에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가

능하다면 간편한 호신용품(호투라기 등)을 소지하자.

둘째, 휴가지에서는 혼자 돌아다니지 말자. 여행객들이 많아 안심하고 혼자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셋째, '성범죄자 알람' (www.sexoffender.go.kr) 서비스를 활용하자. '성범죄자 알람'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어 여름휴가 지역의 성범죄자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다.

넷째, 몰래카메라를 주의하자. 최근 방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몰카 범죄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마다 성범죄는 교묘한 방법들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예방법을 숙지하고 주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피서지 성범죄의 감시자가 되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기억에 남는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